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생활함

성경: 엡 1:22-23, 골 1:18, 2:19, 갈 3:14, 롬 8:9, 고후 3:17-18

I.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으로써 몸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해야 한다—엡 1:22-23, 골 1:18, 2:19.

- A.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머리의 권위로 취임시키셨다. 온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행 2:36, 엡 1:22-23, 빌 2:9-11.
- B. 머리는 권위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 안에서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 28:18.
 - 1. 머리를 붙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오는 것이다—엡 4:15.
 - 2.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은 다른 모든 머리를 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모든 지체의 본분은 머리를 붙들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유일한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다—골 1:18, 2:19.
 - 4.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치하실 때에만 생명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흘러올 수 있다—계 22:1.
 - 5. 몸이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골 2:19.
- C. 몸은 머리의 전달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고 몸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서 머리와 하나이다—엡 1:22-23.
- D.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붙들으로써 함께 연결되어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다—엡 4:15-16, 골 2:19.
 - 1. 우리가 머리와 갖는 관계는 우리와 다른 지체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우리가 모두 그분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 2.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교통은 합당한 근거를 잃어버린다. 우리의 교통의 근거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행 2:42, 요일 1:3.
 - 3. 우리는 서로 직접적인 교제를 갖지 못한다. 모든 교제는 머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골 1:18.
 - a. 당파를 만드는 것은 몇몇 그리스도인이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머리의 권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서로 직접적인 왕래를 하지만 그들의 왕래는 머리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
 - b. 우리가 머리의 지시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와 연관되어 움직여서는 안 된다.
 - 4. 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머리 아래 있어야 하고, 머리를 생명과 결정 요인과 중심으로 취해야 한다—엡 4:15-16.
 - a. 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온 존재의 중심으로 취해야 한다.
 - b. 우리는 모든 지체와 협력하여 머리를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롬 12:5.
- E.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한다—엡 5:21, 23.
 - 1. 우리가 서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며, 머리의 권위를 가지

- 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엡 5:23, 1:22.
2. 사실상 서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머리를 거스르는 반역이다.
 3. 오직 머리만이 높은 지위에 계시며 오직 머리만이 유일하시고 몸과 구별되신다. 지체들 중에는 특별하거나 높은 계급에 있는 지체가 없다.

II. 우리는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한다—갈 3:14, 롬 8:9, 고후 3:17-18.

- A. 삼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며, 그러한 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요 14:10-11, 마 28:19, 고후 13:14.
- B.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 한다—빌 1:19, 롬 8:9, 고후 13:14, 갈 3:14.
- C.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과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공급을 받는다—엡 1:22, 히 8:1-2.
- D.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롬 5:10.
- E.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種)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산다—요 3:3, 5.
- F.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서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의 실재이다—요일 1:3, 7, 행 2:42, 롬 12:5.
- G.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다—요 17:21, 엠 4:3-6.
 1. 진정한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요 17:21.
 - a. 믿는 이들의 진정한 하나는 사실상 삼일 하나님의 하나이다.
 - b. 삼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안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요 17:23.
 2.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의 연합이다—엡 3:14-4:6.
 - a. 이러한 하나님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 b. 믿는 이들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다—갈 3:14, 롬 8:9, 고후 3:17-18.
- H.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다—롬 12:4-5, 고전 12:12-13, 27, 엡 1:22-23, 4:16.
- I.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영역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이 영역을 귀히 여겨야 하고,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높게 여겨야 하고, 그 영에 의해 행하고 영에 따라 행하며, 혼과 영의 분리를 체험하고, 주님과 한 영 되기를 훈련해야 한다—요 3:3, 엠 1:17-18, 2:18, 갈 5:16, 롬 8:4, 히 4:12, 고전 6:17, 딤후 1:7.